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 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22.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의 신고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 필요성 검토 후 별도 감독 진행 예정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보 사업장 폐업(또는 불명),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 조사 진행 중 등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지난 4.9부터 시행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하여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익명 제보 내용

2.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센터 운영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주무관	오성곤 (044-202-7531)
			주무관	김용직 (044-202-7559)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변재연 (044-202-7541) 박찬도 (044-202-7545)





노동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제보사례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

출퇴근 기록이 시스템으로 다 남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연장근로수당 같은 걸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광고업 종사 노동자

포괄임금제라면서 주52시간 넘는 근무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사내 근태기록 안 남기려고 퇴근 후나 주말에 재택업무를 강요하기도 하고, 수당은 전혀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업 노동자

포괄임금 계약이라면서 출퇴근이나 실제 근로시간 관리를 안 해요. 새벽 4시까지 일할 때도 많은데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하나도 안 줘요.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주52시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근로 시간을 제대로 관리 안하고, 사실상 휴일근무까지 시키면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의·상습 체불 의심 제보 사례



법률사무소 노동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2년 동안 연차 미사용 수당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연차대장 관리한다고 하는데, 수당은 지급 안 한다고 공지까지 했어요. 이걸 계산해보면 최대 3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화장품제조업 노동자

직원들 중 약 60%가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일부 직원은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떼가긴 하는데, 실제로 안 내서, 체납 통지서가 날아오는 상황이에요.



엔터업 노동자

임금을 몇 달째 못 받고 있고요. 4대 보험 체납 때문에 직원들한테 고지서도 날아오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도소매업 노동자

2025년부터 전체적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떤 직원은 지급하고, 어떤 직원은 한 번도 못 받는 상황으로 들쭉날쭉한 상황이에요.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민원신청, 조회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재직자들도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임금체불

- 사업주가 급여, 각종
수당 등 임금 과소지급
또는 미지급

장시간, 공짜노동

- 고정으로 약정한 시간초과 등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

비정규직 차별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익명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

- ◆ (제보내용)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사업장명·주소·회사 연락처 등), 세부 피해내용
(체불내역 등) 및 증빙자료
- ◆ 재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 제보센터가 아닌 별도 민원신청 창구를 활용하여
진정 또는 고소 등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